



[해설] 정일문 vs 정영채 IB 거물의 자존심 대결 IPO시장 달군다 03



Economy

코스피	2180.73 (+3.68)	코스닥	733.47 (+4.73)
금리 (미국 3년)	1.78 (-0.01)	환율 (원/달러)	1124.70 (+0.80) (11일)

대한민국 기업 환경이 올해에도 더 나빠질 전망이다. 가파른 임금 인상에 세금 폭탄과 고배당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기업 공간도 빠르게 비어가면서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국경제 2면

이 전년비 4.2%나 감소한 상황, 올해에도 투자 증가율은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점쳐진다. 재계는 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에 이어 정부, 외국자본까지 경영 간섭에 나선 까닭이다. <편집자주>

임금·세금·배당 ‘쓰리高’에

텅텅비는 기업 공간

국내 기업 공간이 ‘비상 사태’에 놓였다. 지난해 4분기 성과급으로 적지 않은 1회성 비용을 지출한 가운데, 높은 법인세와 고배당까지 겹치면서 높은 실적도 빛이 바랬다. 투자 심리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58조8900억원) 중 28.6%인 16조8200억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지출했다. 전년보다 2.5% 포인트 늘어난 금액이다.

법인세비용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으로 나눈 법인세 부담률도 27.5%로 2.6% 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다. 법인세 부담률이 27.2%로 전년비 6.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전년 대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58.8%나 늘렸지만, 법인세가 107.4% 더 많아지면서 성과도 반감됐다.

정부가 2017년 과세표준 구간 300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결과다. 네이버가 35.6%에서 43.4%로, LG화학이 21.1%에서 21.7%로 법인세율을 늘리는 등 실적을 높인 기업 상당수가 법인세를 더 내게 됐다.

미국이 지난해 법인세 비율을



문재인 대통령은 올 들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높은 법인세와 경영 개입 등 반기업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문재인 대통령, SK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정부 법인세율 높여 부담 ↑ 삼성 법인세 영업익의 29% SK하이닉스도 27% 지출

외국자본 국민연금 배당 압박 위축된 투자심리도 지속 전망

35%에서 21%로 대폭 낮춘 것과 크게 대조된다.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법인세 비율을 10% 수준으로 줄인 덕분에, 지난해 시원찮은 성적표를 받아 들였음에도 숨통은 트였다는 평가다.

아울러 고배당 압력도 국내 기업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

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개 그룹은 지난해 총 17조9759억원을 배당했다. 전년보다 무려 32.7%나 늘었다.

특히 현대차는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47.1%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배당을 전년 수준인 주당 3000원으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의 절반인 6400억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그 밖에 상장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면서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배당금 총액이 3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고용보장 없이 조선 합병 불가”

빅딜 가로막는 노조

국내 조선업계 1위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설 연휴 이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각각 임단협을 중단하고 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겪었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 인수로 구조조정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11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충고용 보장을 선언하지 않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강행한다면 노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과행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인수 밀실 추진 등을 구성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모든 인수 과정에 노조 직접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소식지를 통해 “설계, 영업, 연구 등을 시작으로 서로 중복되는 인력 구조조정은 볼 보듯 뻔하다”며 “산업은행도 인수 추진 조건으로 업체 간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효율 제거가 수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까지 13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대우조선에 투입됐고 부채비율은 216%에 달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소속 회원들이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중-대우조선 합병놓고 구조조정 우려... 반발 심화

현대중 노조

인수 과정 노조참여 보장해야

대우조선 노조

매각대응투쟁 정의행위 투표

다”며 “조선산업 회복이 더디거나 기대에 못 미쳐 대우조선 인수가 동반 부실로 이어진다면 또 다시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피인수 기업인 대우조선 노조는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 노조는 설 연휴가 지나자 본격적으로 ‘매각 결사 반대’를 외치며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는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매각대응투쟁 관련해 정의행위 결의를 진행했다. 오는 18, 19일 양일간 매각대응투쟁과 관련해 정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대응투쟁은 대우조선 전체노동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투쟁인 만큼 노동조합은 사무직, 사내 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거제지역민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합병이 성사될 경우 세계 신규 선박 시장의 20%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힘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양성문 기자 ysw@

“혁신적 포용국가 새 동력 ‘평화경제’”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줄곧 강조한 가운데,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화경제’를 꼽았다. 평화경제는 1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 때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회의 때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 위에 있다. 분단 후 처음 맞이한 이 기회를 살리는 게 전쟁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경제가 되는 우리의 미래를 키우는 일”이라며 “남북은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평화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시대를 함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 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평화경제는) 행운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간절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고 노력할 때만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남북간 대화와 소통의 채널을 항상 열어 두면서 한미간 공조를 긴밀하게 해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거론하면서 언급한 ‘분단 후 처음 맞이한 기회’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뜻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번 수석회의 때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작년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대 진전”이라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시대가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즉 2차 북미회담 결과에 따라 ‘평화경제’ 성공여부가 좌우된다는 얘기다.

/우승훈 기자 dn1114@

위기의 지엠·르노, 벤츠에 내수 4위 내줘

벤츠, 1월 내수 4.0% 차지 르노 3.5%, 지엠 3.1% 그쳐

내수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자동차가 좀처럼 내수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내수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선보인 신차이퀴녹스에 이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더 뉴 말리부를 출시하며 내수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판매 부진의 고배를 마시며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르노삼성은 SM6와 QM6, QM3 출시 이후 신차 부재로 내수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월 벤츠코리아의 판매량은 5796대로 전체 국내 승용차 판매량(상용차 제외) 11만4632대의 4.0%를 차지해 현대차(31.2%)와 기아차(22.8%), 쌍용차(6.1%)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벤츠의 1월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8% 줄었지만,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의 내수 판매량도 각각 19.2%, 35.6% 급감하면서 벤츠보다 순위가 밀렸다.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의 1월 점유율은 각각 3.5%, 3.1%에 그쳤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 2월 벤츠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 기준 내수 4위로 올라 3개월 연속 4위를 지키다가 작년 5월부터는 다시 6위에 머물

렀다.

이처럼 벤츠가 내수 점유율을 끌어올린 것은 ‘E-클래스’의 인기 덕분이다. E-클래스는 1월 판매량이 3392대로 국내에서 12번째로 많이 팔린 승용차다. E-클래스는 지난해 연간 19위에서 7계단 올라섰다. 기아차의 주력 세단인 K5와 K7은 물론 쌍용차의 주력 모델인 티볼리 등을 앞섰고, 르노삼성의 판매 1위인 QM6와 한국지엠의 판매 1위인 스파크보다 많았다.

E-클래스는 2016년 6월 완전변경(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된 이후 국내에서 수입차 판매량 1위를 유지하며 각종 신기록을 작성하는 주역이 됐다. <6면에 계속>

/양성문 기자